

GS칼텍스, 주유소 태양광 발전 업무제휴

GS칼텍스는 12월11일 경기도 시흥시 GS칼텍스 시화IC주유소에서 경기도와 주유소 태양광발전사업 업무제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주유소 태양광 발전사업은 주유소 캐노피, 옥상 등 유휴 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것으로, 석유 수요 침체에 대응하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약은 경기도 소재 GS칼텍스 계열 주유소의 태양광발전사업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GS칼텍스는 경기도 소재 계열 주유소의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시 발전사업 허가와 공사계획 신고 등에서 경기도의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기도는 GS칼텍스 주유소를 기본모델로 삼아 앞으로 경기도 전체 주유소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GS칼텍스는 시화IC주유소 등 8개 주유소에 연간 약 200M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8/12/11>